



# 미키 라오스

우리들의  
이야기

---

# 목차

1. 팀 소개

2. 활동

3. 생활

4. 고민거리



미키  
라오스  
팀 소  
개

욕심 없이 소소한 즐거움으로 재  
미있게 살아가는 미키라오스!!



**박일현(25살)**

팀의 든든한  
아버지이자  
애교쟁이.



**정윤지(22살)**

팀의 다재다능한  
귀염둥이 울보.

**고다희(23살)**

팀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으  
나 허당끼가  
다분함.



**정재만(23살)**

로봇같지만  
따뜻한 마음  
을 가진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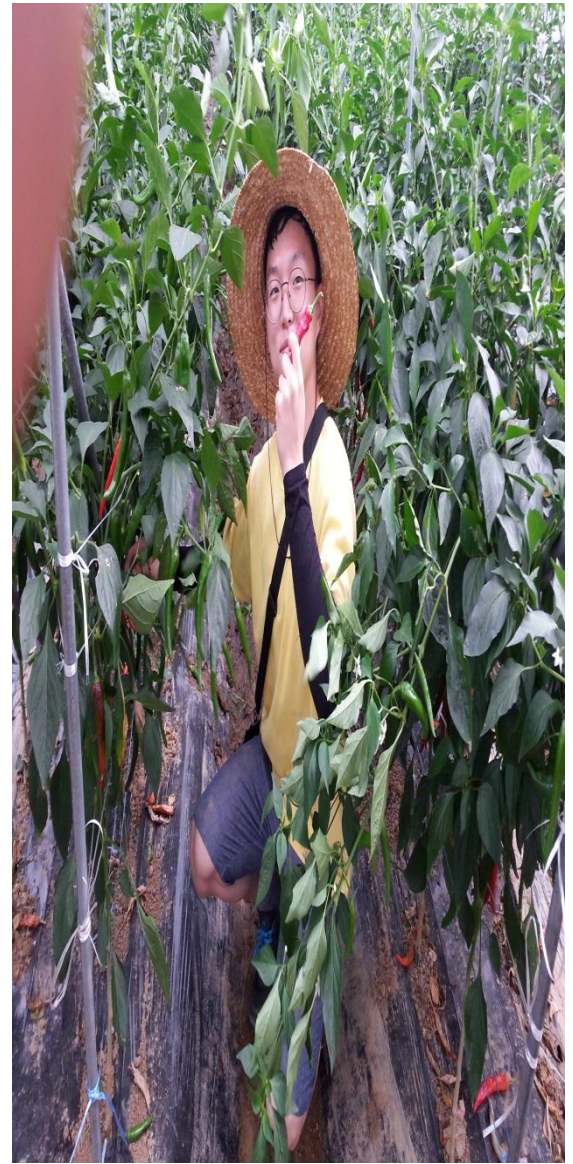
21일 간 우리들만의 이야기

02

## 활동 -농촌 활동



2016. 7. 25 ~ 7. 31



40도의 고온 만큼이나 뜨거웠던 우리

## 송악 교회 친구들과 마음 나누기



아이들만큼이나 우리가 재밌게 놀았던 시간들

#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마을이 학교다!!

02

## 활동 -아가야 센터



2016. 8. 2 ~ 8. 5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간들

## 활동

### -지역 활동가들과의 만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사회적 협동 조합 수피아.

'수피아'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어  
신기했고  
버려진 청바지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청바지의 새로운 변신. 이뻐이뻐

청바지의 새로운 삶 '수피아'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살기 전에  
우리 결의 외국인들에 대해 알고  
공부해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도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하는  
데 가르치러 가야 한다니...

막막한 우리들에게 여러 팁들을  
알려주신 한국어 선생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빨간 피**가 흐릅니다.



아무 음식이나 맛만 좋다면  
허겁지겁 주워 먹던 우리..

그런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와 생협에 대해 여러 중요  
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  
던 시간

안전한 먹거리는 **생협**이쥬

우리의 옛 놀이를 찾아서 '전래 놀이'

우리가 알고 있던 놀이도  
있었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놀이도  
있었다.

라오스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놀아줘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  
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재미  
있는 놀이들을 많이 배우게 되  
어 걱정이 아닌 기대로 바뀌게  
되었다.



02

## 활동 -청소년 Y와의 만남



청소년 Y들에게 **라운아띠** 알리기. 미래의 **라운아띠**들?

# 03

## 우리들의 생활 - 여행



신정호로 자전거 여행 가U~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우리들의 여행 ♪**  
-은행나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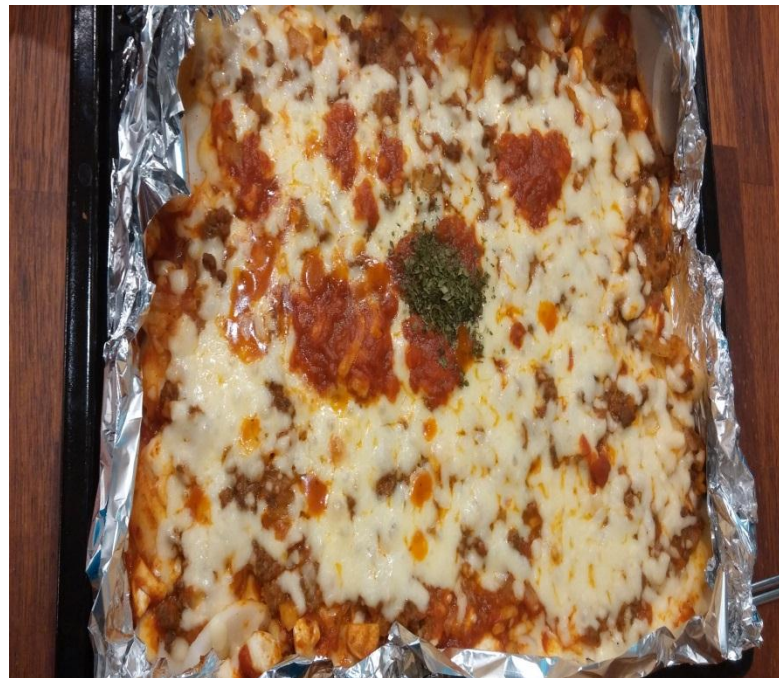
03

## 우리들의 생활 - 일상



미키라오스는

요리사



## 고민거리



박일현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공생하며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며 느낀점이 많은데요 라온아띠 활동을 끝마치고

나는 어떻게 공생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가지는 계기 였구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다름에 있어 이해하고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것을 많이 배우고 방비앙에 가서도 중요한 맥락인것 같다.

또한

낮선부분에 있어 기피하지 않으며 도전할것이다.

## 고민거리

정윤지



나는 지역 훈련을 떠나기 전에  
집으로 도망치겠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내가 생각한 라온아띠와 캠프에서 배웠던 앞으로 시작  
할 라온아띠가 너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도 기대감  
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었다. 하지만 막상 지역 훈련에  
임해보니 또 그 나름대로 지역 안에서의 나의 라온아  
띠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아산의 라온아띠가 되어 따  
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곳은 나를 기다려주는  
공간들과,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시간들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온아띠였다.

도망치고 싶다는 나의 말에 마음껏 도망치라고 얘기해주는 나의 라온아띠가 있다. 도망친 곳에도 답이 없다는 걸 자기 눈으로 목격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된다고. 그러니 마음껏 도망쳐 보고,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길을 찾아 보고, 그런 힘으로써 멋지게 살아가라고, 그 여정의 어딘가에서 나를 항상 기다려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얼마 전에 고마운 편지를 받았는데, 나에겐 좋은 위로가 되어서 아띠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이곳에 머물면 여기가 현재인데 곧 다른 것을 꿈꾸게 된다. 사람들에게 현재란, 삶이란 늘 불만족스러운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꿈꾸던 그 곳에 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다시 현재가 되는 거고.” -미드나잇 인 파리*

사람들은 일탈을 꿈꾸며 현실을 벗어나지만, 일탈한 그곳은 얼마 안 되어 다시 현실이 된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발견할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라온아띠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현재를 만들려 떠난다.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꿈속의 나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 고다희

고민과 고민이 끊기지 않았던 국내 캠프기간.  
뭐니뭐니해도 내가 왜 라온아띠가 되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던 거 같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리'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고민을 차차 해결해 가고 있는 중이다.

라오스에 가서도 수 많은 고민에 부딪힐 거라 생각한다.  
그 때에도 '고다희'에 집중하고  
'우리'에 집중하여 고민들을 잘 해결해 가는 아띠가  
되어야겠다.



정재만

정말 너무 예뻐서 납치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아이가 있었다. 첫날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내 품에 '폭' 하고 안기면서 너무 좋다고 해주었던 아이.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라도 주면 질투하면서 나랑 놀자고 보채던 아이. 다음날에 다시 만나면 보고 싶었다고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애교를 떨던 아이. 예준이는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나랑 일주일 내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었다. 다른 아이들을 신경 쓰며 챙겨줬어야 했지만, 제일 나이도 어리고 나를 유독 따르는 게 이뻐서 활동하는 4일 내내 매일 거의 둘만의 세계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예준이랑 어떻게 헤어지지, 어떻게 나의 상황을 설명해주지 걱정을 많이 했었다. 마지막 날.

"예준아 나 이제 가야 돼..."

"응! 잘 가. 내일 봐~"

"우리 이제 못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

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처음 안겼을 때 그냥 납치를 했어야 됐는데 예준이의 귀여움에 너무 혹해서 타이밍을 놓쳤다.

농활을 하고 아가야 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며 아이들이 참 솔직하고 가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감정 표현이나 생각을 말함에 있어도 스스럼이 없고 행동과 표정에 그대로 현재 상태가 드러난다.

—유독 윤지와 다희에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나에겐 왜 못생겼다고 하는지는 더욱 큰 의문이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에 아이들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같다. 100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행복할 수 있고,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나 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100프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우면서, 이것저것 재며 아닌 체 연기를 하는 나의 평소 태도가 옳은지 고민하게 되었다.

난 평범한 사람들보다 혜택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지만, 많은 부담을 등에 지고 있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 라오스에 가서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진솔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과정에 놓여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한심하고 좀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국내 훈련을 한 달여 동안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 350PPM이니, 생태, 불평등, 인종, 등등 별별 문제를 다 들으니 훈련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과 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해준 이 라온아띠의 취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나에게 내 몸 하나도 무겁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나의 목표가 라오스에서 모든 부담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예준이처럼 현재와 순간 순간에 집중하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교육이 내가 추구하는 라오스 생활과 연관 지어 질까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조그마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긴 할 것이다. 라오스에 가서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다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된 **우리**.

'동서남북' 각자의 길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